

# 돌아보는 연변룡정팀의 2024 시즌

—이반 콰드라도 편



이반 콰드라도 전임 감독



“뿔은 놓쳐도 사람은 절대 안된다.” 대 광주전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 김태연.

1979년 2월 21일에 에스빠냐에서 출생한 이반 콰드라도가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의 사령탑을 맡은 것은 김봉길 감독이 팀을 떠난 후였다. 무석오구팀의 감독으로 10라운드 경기를 지휘하였으나 1승 2무 7패의 성적 부진으로 5월 20일에 경질당한 이반 감독이 중국에서 지휘한 총 16라운드의 경기에서 거둔 유일한 승리는 제2라운드 경기에서 무석오구를 이끌고 2대 0으로 연변팀을 제압한 그 경기뿐이었다.

그의 성적 부진은 연변팀에 와서도 이어졌다. 6월 8일에 진행된 첫 경기 인제 13라운드 경기 상대는 청도홍사였다.

이반은 취임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연변팀 젊은 선수들의 표현이 매우 출중하다. 감독진은 매개 선수들의 특점에 근거하여 축구팀에 적합한 기전술을 제정하고 훈련을 통해 기전술이 하루빨리 축구팀에 융합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말한 대로 과연 젊은 선수들을 대거 투입시켰다. 림태준, 리세빈, 허문광 등 3명의 U-21 선수를 선발 출전시키고 류박, 현지건, 양이해, 왕빈한 등 4명의 U-21 선수를 후보로 출전시켰다. 경기는 20분경에 한꼴을 내주고 0대 1로 뒤집

다가 43분경 한광휘의 도움으로 림태준이 헤딩슛 동점꼴을 뽑으며 전반전에 1대 1로 끝냈다.

공방 절주가 비교적 빠른 이날 경기에서 청도홍사는 홈장 우세를 충분히 이용하였는데 69분경 코너킥 기회로 추가꼴을 터뜨리고 77분경에는 먼거리 패스로 단독 기회를 만들어내 진호위가 들어뿔슛(吊射)으로 째기꼴을 박아넣었다. 비록 연변팀에서 85분경에 양이해와 로난의 배합으로 한꼴을 만회하였으나 2대 3 원정패를 당해야 했다. 하지만 언론은 경기 내용보다 ‘청춘폭풍’을 강조하였고 구락부 종경리는 ‘바른셀로나 출신’을 강조하면서 그가 연변 본토 선수들을 경기 가운데서 신속하게 성장시킬 것을 희망하였다. 그만금 기대가 컸다.

6월 16일, 연길시전민건강중심 경기장에서 진행된 제 14라운드 경기 상대는 광주팀이었다. 이반은 역시 3명의 젊은 선수를 선발로 출전시켰다. 11분경, 현지건이 금지구역 안에서 반칙당하면서 페널티킥이 주어졌고 로난이 주도하여 1대 0으로 앞서갔다. 형세는 매우 좋은 듯했으나 18분경 광주팀에서 프리킥 기회를 이용하여 헤딩슛으로 동점꼴을 뽑

고 다시 40분경 김태연의 도움으로 림태준이 땅뿔슛에 성공하면서 2대 1로 다시 앞서갔다. U-21 선수들이 현지건, 림태준, 허문광이 빛났고 교체 출전한 류박과 왕박호도 활약상을 보였다. 그러나 66분경에 베니야가 넣은 먼거리슛은 좀 아쉬웠다. 어쨌거나 경기는 2대 2 아쉬운 무승부로 끝났다. 필자가 보건대 이반이 지휘한 6경기중 이 경기가 가장 잘한 경기인 것 같다.

6월 30일, 광동성 불산에서 진행된 불산남사와의 제 15라운드 경기에서 이반 감독은 리세빈, 왕박호, 림태준, 현지건 등 4명의 U-21 선수를 선발 출전시켜 이보, 왕봉이 없는 빈자리를 메웠다. 경기 실력이 엇비슷한 두 팀은 전반전에는 0대 0으로 손잡았으나 후반전 들어 승리의 천평은 불산남사로 기울어졌다. 61분경, 서계조의 핸들링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내주고 0대 1로 뒤지다가 81분경에는 쾌속 반격으로 추가꼴을 내주고 결국 0대 2로 졌다. 운이 따라주지 않은 경기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7월 7일 홈장에서 진행된 소주동오와의 제 16라운드 경기는 이반 감독의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다.

## 룡정시과외체육학교

### ‘체육과 교육 융합’으로 ‘축구의 고향’ 새 풍채 새롭게 구축



룡정시과외체육학교 축구팀은 1956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이 학교에는 75명의 남자 축구선수와 11명의 축구 감독을 포함한 165명의 축구 선수가 있다. 최근년간 인재 류실과 경기 수준 하락의 이중 도전에 직면하여 룡정시과외체육학교에서는 개혁과 혁신을 적극 모색하고 체육과 교육의 융합 방식을 통해 ‘축구의 고향’ 열정과 활력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데 진력하고 있다.

예비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여 과학적이고도 합리한 학생모집 기준과 선발 절차를 제정하고 소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는 선발 기제를 확립하였으며 각 중소학교와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 잠재력 있는 학생들의 등록을 이끌었다. 교원 자질, 장소, 시설, 설비 등의 실제와 결부하여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체계적으로 축구선수에 한해 최소 2시간의 체계화 전문화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훈련 수요를 끊임없이

충족시켜주고 있다. 현재 남자축구팀(U-12) 선수인 권현성은 ‘국제축구협회 엘리트 선수 훈련 캠프’에 뽑혔고, 여자축구팀(U-13)의 선수 윤현아는 ‘장춘대중탁월여자축구구락부(예비팀)’에 입선했다.

교원대오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초빙 강도를 높여 풍부한 교수 경험과 전문 기능을 갖춘 코치들을 영입하고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중국 최고 프로리그에서 은퇴한 선수들을 잇달아 축구 감독으로 영입해 축구 감독 자질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와 동시에 교원의 종합자질과 개인 능력 양성에 중시를 돌리고 비정기적으로 코치들을 조직하여 국가, 성, 주, 급의 강습과 연수에 참가하게 했으며 코치 심사평가 기제를 구축하여 학술연구, 교수전략, 과제연구 등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통해 코치의 교수 수준과 체육경기 능력을 부단히 제고시키도록 했다.

인재 비축 육성 기제를 혁신하여 특수인재 비축 체계를 구축, 보완했으며 부동한 종목과 선수들의 특점에 근거해 전 주에서 유일하게 유소년 시스템이 완비한 여자축구팀을 성공적으로 편성했다. 여자축구팀의 편성은 연

으로 계획하여 완벽하고도 과학적인 훈련 시스템을 구축했는바 부동한 종목과 운동선수의 특징에 따라 개성화 훈련계획을 제정했으며 시교육국과 기본협의를 구축해 고종에서의 주전입학 기제를 건립하고 이 학교에 등록된 축구선수는 체육 특기와 경기 수준에 따라 룡정시의 중점고중에 추천입학할 수 있게 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과 <맞춤형 청소년 체육 예비 인재 육성 협의>를 맺고 선진적인 훈련 리념과 기술을 부단히 도입했다.

레를 들면 데이터 분석, 체력 테스트와 기술지도로 훈련의 목적성과 효과를 높였고 룡정시체육운동학교 훈련 장소를 ‘연변대학 실전실습기지’로 확립했다.

인재 비축 육성 기제를 혁신하여 특수인재 비축 체계를 구축, 보완했으며 부동한 종목과 선수들의 특점에 근거해 전 주에서 유일하게 유소년 시스템이 완비한 여자축구팀을 성공적으로 편성했다. 여자축구팀의 편성은 연

34분경에 소주동오가 한차례 공격에서 연변팀의 수비진 사이로 현란한 배합 끝에 선제꼴을 뽑았는데 수비 선수들의 대인방어에 빤틈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반은 림태준과 리세빈으로 왕성쾌와 양경범을 교체하여 공격진을 강화하려고 하였으며 허리께가 약하다고 손군으로 천장걸을 교체 출전시키고 수비 경력이 없는 리강으로 허문광을 교체 출전시켰는데 이는 52분경의 두번째 꼴, 79분경의 세번째 꼴을 유발했고 80분경과 87분경의 4호꼴과 5호꼴은 경기 국면이 허물어진 상태에서 내준 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반의 처방이 적절하지 못한 결과였다.

제 17라운드 경기 역시 연변팀의 홈장 경기였는데 상대는 무석오구였다. 이반은 마지막으로 연변팀을 지휘한 경기는 7월 20일에 진행된 제 18라운드 경기인 대 남경도시전이었는데 원정에서 이긴 바 있는 남경도시를 상대하여 이반은 현지건(U-21 선수) 외 모두 도장들을 출전시키고 승리를 거두려고 애를 썼으나 1대 2 패배를 당했다.

결국 ‘에스빠냐의 선전 축구 리념’을 주입하고 ‘연변팀에 적합한 기전술 타법’을 약속하면서 연변팀에 ‘청춘폭풍’을 몰고 왔던 이반 콰드라도 감독은 6라운드 경기에서 2무 4패(6득 15실)의 부끄러운 담안지를 내놓고 팀의 순위도 8위에서 13위로 끌어내린 채 슬며시 사령탑을 내려놓어야 했다.

/ 김태국기자



3 금 1동!

길림성 운동선수 국제경기서 대활약!



MEN'S 500M

01 SUN LONG CHINESE LOONGS  
02 STEVEN DUBOIS CANADIAN ICE MAPLES  
03 LIU SHAOANG CHINESE LOONGS

2024—2025 국제빙상경기련맹 쇼트트랙 월드투어가 12월 7일부터 8일까지 북경에서 펼쳐졌다. 길림성의 운동선수 손룡이 경기장에서 눈부신 활약을 이어갔는데 3금 1동의 성적으로 길림 건아의 풍채를 남김 없이 보여주었다.

먼저 남자 500m 결승에서 손룡은 40.155의 성적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고 2,000m 대회 혼성 단체 계주 결승에서 손룡과 공리, 범가신, 류소양으로 결성된 중국팀은 2분 39초 115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따냈다.

이어 남자 5,000m 대회 계주에서 손룡과 주의정, 류소양, 류소림, 류문룡, 류관일로 구성된 중국팀



은 또 한번 금메달을 쟁취했다.

남자 1,500m 결승에서 손룡은 2분 17초 186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중국쇼트트랙팀은 이번 북경역 경기를 완벽하게 마쳤다.

/ 길림발부

## 11 살 1 금 운동원! 누구?

최근, 전국탁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1 금 운동원’ 칭호를 받은 11 살 남학생이 네이버를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의 이름은 마국동이고 절강 항주에서 온 5학년 학생이다.

그는 얼마전 중국탁구협회가 주최한 전국 청소년 엘리트 시리즈에 참가해 전국 준우승을 차지하며 국가 청년대표팀 합동훈련 자격을 얻었다.

나이는 어리지만 4살 반부터 탁구를 시작한 마국동은 벌써 6년이 넘는 운동 경력을 가지고 있다. 탁구 외의 인연은 그가 무심코 들었던 한자례 탁구수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신체단련을 목적으로 했던 운동을 지금껏 견지해온 것이다.

유치원에서 소학교에 이르기까지 마국동의 훈련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성적 또한 전 성 13위에서 9위, 6위, 4위로 점차 향상되고 있다. 2학년 때, 마국동은 첫번째 성급 대회 남자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마국동은 절강성 중소학생 탁구 우승대회(파이널) 남자 단식에서



도 여려차례 우승을 거머쥐었다.

마국동은 탁구 프로선수 중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마룡을 꼽았다. “탁구에 대한 진지하고도 끈질긴 마룡선배님의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마국동은 자신도 마룡처럼 나라를 빛내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 인민넷

## 90 위, 중국 남자축구 세계 순위 2 단계 상승

국제축구연합회는 11월 28일 최신 남자축구 세계 순위를 발표했다. 11월에 있은 월드컵 예선경기에서 1승 1패를 한 중국팀이 90위에서 90위로 순위가 올라갔다.

11월 14일에 중국팀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경기 18강전에서 1대 0으로 바레인팀을 이기고 이어

19일에 1대 3으로 일본팀에 졌다.

특히 일본팀과의 경기에서 비록 졌지만 준수한 경기력으로 팬들로부터 ‘였지만 잘 싸웠다’는 찬사를 받으며 월드컵 진출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다. 더불어 중국팀은 이 두 차례의 경기를 통해 순위 점수가 9.09 점 늘어났다.

상위 5위 팀의 순위는 변화가 없

/ 신화사

/ 사진 룡정시당위 선전부